

『大東詠選』의 내용과 選集 의의

김석태*

<차 례>	
1. 머리말	
2. 錦溟 寶鼎과 『大東詠選』	
2.1 選者 錦溟 寶鼎에 대하여	
2.2 『大東詠選』의 選集 의도와 구성	
3. 『大東詠選』 수록 詩의 주요 양상	
3.1 종교적 목적의식	
3.2 불교적 세계관의 문학적 승화	
3.3 역사적 가치 중시	
3.4 사찰의 공간적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大東詠選』은 錦溟 寶鼎이 역대의 불교 관련 시를 선발하여 편집한 詩選集이다. 우리 고전 문학상 불교문학은 삼국시대의 소수 작품으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다. 특히 고려시대 대각국사

(1055~1101)의 문집 이래로 근대까지 간행된 불가 문집이 축적되면서 고전시문학의 세계를 폭넓게 하는데 일조하였다. 한국 한시사를 살펴보면, 고려말 『三韓詩龜鑑』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靑丘風雅』·『國朝詩刪』·『箕雅』·『昭代風謠』·『大東詩選』 등이 있어 우리 한시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개인적인 편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높은 수준의 소양과 감식안을 갖춘 인물에 의한 시선집은 각 문학 장르의 실상과 역사적 전변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더 없이 소중한 자료임을 물론이다.¹⁾ 그러나 불가의 문학에 있어서는 『東文選』과 같은 官撰은 물론 私撰 시선집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역대 시선집에 극히 소수의 시문이 선발되어 있을 뿐이고, 『大東詩選』의 叢林篇에 75명 146편의 불가 시문이 수록된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도 그 가치는 충분이 인정이 되지만, 불교의 권역 외 인사에 의한 선집으로 불교인의 감식안으로 본 불교문학의 본령을 파악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불교문학의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역대 불교 관련 시들 중에서 불교인의 안목으로 선발한 불교문학 시선집인 금명 보정의 『大東詠選』은 그 가치가 크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시선집의 결산이라 할 수 있는 장지연의 『대동시선』과 동시대에 등장한 금명보정의 『大東詠選』이 있어 불교인의 감식안으로 뽑은 역대 불교문학의 실상을 고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한 인물이 선발한 시선집을 통해서 한국 불교문학의 역사적 전개나 문학적 가치, 성격 등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교인의 안목으로 선발한 시선집으로서 현재 확인된 것으로는 거

1)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6, 9~13쪽. '한시를 제 모습 그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학사 서술에 직접 제공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를 선발하는 것이 선결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역대 주요 사찬 시선집이 지닌 문학사적 가치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고 하여 사찬 시선집의 문학사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 전남대학교

의 유일한 자료에 대한 검토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大東詠選』²⁾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 전체 수록 시들의 특징적인 몇 가지 주요 양상 등을 조명해 보고 한계와 자료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본론에 있는 ‘수록 詩의 주요 양상’은 곧 시를 선발한 選者의 시각을 달리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의 종교적 목적의식과 불교적 세계관의 문학적 승화, 시의 역사적 사실 수용, 사찰의 공간적 의미 등에 관심을 갖고 시를 선발, 수록하였다는 것이다.

2. 錦溟 寶鼎과 『大東詠選』

2.1 選者 錦溟 寶鼎에 대하여

錦溟 寶鼎(1861~1930)의 법명은 寶鼎, 添華라는 이름도 있다. 字 茶松, 號 錦溟으로 속성은 김씨, 본관은 김해이다. 1861년(철종12) 정월 19일 谷城郡 石谷面 雲月里에서 출생하였다. 대대로 사대부 집안의 후손이라고 전해진다. 1875년(고종12) 12월 22일 松廣寺 金蓮에게 출가, 1877년(고종14) 7월 15일 景坡에게 계를 받았다. 그는 景坡·景鵬·混海·圓華·九蓮·圓海·茵溟·梵海 등 선지식을 두루 찾아 내외의 典籍을 배웠다.

특히 『東師列傳』을 저술한 梵海 覺岸(1820~1896)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금명의 나이 26세인 1886년 대흥사에서 범해율사로 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금명이 『東師列傳』과 함께 고승전으로서 귀중한

2) 『大東詠選』은 송광사 소장 필사본이 있고, 이를 저본으로 《韓國佛教全書》제12책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韓佛全》 제12책을 주 자료로 하고 필사본의 동국대 소장 복사본을 참조하였다.

史書로 일컬어지는 『曹溪高僧傳』을 찬술한 것과, ‘茶松子’라는 그의 호에서 알 수 있듯이 불가의 다맥을 전승하였다는 점에서 범해와 금명의 관계를 알 수 있다.

『東師列傳』은 멀리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조선 등의 순서로 우리나라 고승의 전기를 실은 반면, 『曹溪高僧傳』은 주로 조계산을 중심으로 쓴 것이어서 송광사 중창주인 불일보조국사로부터 시작하여 16국사, 송광사와 선암사 두 사찰과 本末寺 관계에 있는 절의 고승을 주로 서술하였다. 금명이 두륜산 대흥사에 가서 범해에게서 구족계를 받은 것을 계기로 고승전 집필을 기획하고 10년(1920~30) 동안 혼자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하여 총386명의 고승을 기록하였다.³⁾ 또한 금명은 茶僧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茶詩를 남기고 있는데 『栢悅錄』⁴⁾에 범해선사의 〈茶藥說〉을 수록해 놓았다. 고승의 열전을 집필한 점, 차를 중심으로 한 영향관계 등에서 볼 때 스승인 범해선사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⁵⁾

이와 같이 범해를 비롯한 당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과 학문의 기반을 다진 금명 보정은 방대한 저술을 남긴 저술가이면서 문학의 측면에서는 매우 많은 시를 창작한 문학가이기도 하였다. 그의 『茶松詩稿』 3권에는 1,101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茶松文稿』 2권에는 246편의 다양한 종류의 문이 실려 있다. 이외에도 수종의 다양한 저술을 남기고 있다.⁶⁾ 그는 매우 폭넓은 식견을 지닌 근대의 대표적인

3) 白雲, 「曹溪高僧傳과 東師列傳의 比較研究」, 茶松子(錦溟寶鼎禪師)학술회의 발표집, 2001, 송광사, 31쪽. 참고로, 수록한 386명 중 전기를 기록한 고승은 97명, 전기가 없이 이름만 기록한 인물은 289명이다.

4) 錦溟의 『栢悅錄』 소재 〈茶藥說〉(《韓佛全》12-528~9)은 『梵海禪師文集』권1의 그것(《韓佛全》10-1080)과 轉寫하는 과정에서 내용상 다소 출입이 있다.

5) 千栢植, 「錦溟禪師 茶詩의 世界」, (앞의 발표집)에서 이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논하였다.

6) 그의 〈行錄草〉에 기록된 저술 목록은 다음과 같다. 『茶松詩稿』 3卷·『茶松文稿』2

불교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자 石顛 鼎鎬(1870~1948)와 함께 불가 한 시문학의 마지막을 장식한 시인이기도 하였다.

22 『大東詠選』의 選集 의도와 구성

『大東詠選』을 언제 어떤 취지로 편찬하게 되었는지 직접적인 기록은 확인해 본 바로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그의 다른 저술에 보이는 몇 가지 언설을 통해서 『대동영선』 선집의 취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본래의 보는 북위의 승우가 찬집한 것으로) 나는 講經의 여가에 한 번 열람하고 번다한 것을 조절하고 간략한 것을 취해 기록하여 60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과목은 비록 본래보다 배가 되었으나 글은 10분의 1 보다 더 간략하다. 글이 비록 이전보다 간략해졌다고 하지만 뜻에는 본래의 책에 비하여 흠이 없으니, 이는 번다한 것을 꺼려하고 간결한 것을 좋아하는 모범이 될 것이다. 각 과의 끝에 마무리 하는 한 곡을 붙여 六十咏이 되었으니 곧 계송이다. 요약하여 기록하고 언해에 토를 하여 『釋譜略錄』이라 이름 하였으니 초학자들이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⁷⁾

중국 양나라 때의 僧佑(444~518)가 저술한 『釋迦譜』 5권의 핵심을 요약하여 『釋譜略錄』을 짓고 거기에 붙인 序이다. 『釋迦譜』는 모두 34

卷·『佛祖贊詠』1卷·『淨土百詠』1卷, 編錄한 것으로는 『曹溪高僧傳』1卷·『著譯叢譜』1卷·『釋譜略錄』1卷·『三藏法數』1卷·『念佛要解』1卷·『續名數集』1卷·『十地經科』·『楞嚴經科圖』·『大東詠選』·『質疑錄』·『須彌山圖』 등이 있다. <韓佛全> 제12책(773쪽)의 <행록초>에는 『大東詠選』으로 동국대 소장 필사본 <행록초>에는 『大東詠選』으로 되어 있다.

7) 予於講授之餘, 隨暇一閱, 節煩取畧而錄之, 爲六十科, 而疎雜倍於本, 而文益畧於十一. 文雖畧於前, 而義不欠於本焉, 此憚煩好畧之方軌也. 科末每係一閱, 爲六十咏, 卽祇夜頌也. 但畧而錄之, 諺而吐之, 以釋譜畧錄命名之, 爲初學之一覽. (<釋譜畧錄自序>, 『茶松文稿』 卷2, <韓佛全> 12-745).

품으로 석가모니 일생의 교화하던 자취를 기록하면서 經·律의 글을 抄出하여 한 권으로 한 것이다. 고려 대장경에는 5권이나 송·원·명 등의 대장경에는 10권으로 되어 있고 내용도 약간 차이가 있다. 금명 보정은 이 책의 번다한 것을 조절하고 간략한 것을 취해 자신의 의도에 따라 60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글이 이전보다 간략해 졌으나 뜻은 본래의 책에 비해 흠이 없다고 자부하였다. 그 저술의 목적은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초학자들이 한 번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講經 이외에도 철저하도록 蒐輯과 著作으로 일관한』⁸⁾ 삶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금명 보정의 저술목록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자신의 순수한 저작도 물론 비중이 높지만 그 저술의 특징이라면, 역사적으로 방대하게 축적된 저술들을 통합 정리하거나 핵심을 요약하거나 중요한 것들을 발췌 수집하여 節錄이나 選集을 만드는 것이다. 그 중 몇 가지만 들면, 고금의 저술 목록을 총정리 한 『著譯叢譜』, 역대 조계산의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한 『曹溪高僧傳』, 석가모니에서 해동의 조계종사에 이르는 역대 조사의 찬송을 엮은 『佛祖錄讚頌』, 승속의 시문을 모은 『栢悅錄』 등이 있다. 이들 著述과 纂集에 심혈을 기울였던 금명 보정의 입장이고 보면 불교 관련 역대의 시를 선집한 『大東詠選』을 편찬하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1,101편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했으니, 詩僧으로서 역대의 불교시에 대한 관심과 선집의 열망은 당연한 것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여러 저술 서문에서 밝힌 저술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당대나 후학들이 가르침의 핵심을 간파하는데 도움이 되게

8) 李鍾燦, 『茶松의 著述』, 茶松子(錦冥寶鼎禪師)학술회의 발표집, 2001, 송광사, 39쪽.

하는 것과, 이를 통해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著譯叢譜序〉⁹⁾에서는 ‘불교가 동으로 전래된 이래로 저역서가 더욱 많아졌으니 혹 경론의 同異와 疏記의 廣略과 저자의 이름 등을 능히 분별해 내지 못하였다. 나는 강경 하는 때에 매양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이 책을 이루니 고금에 지은 것들을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佛祖錄贊頌序〉에서는 ‘모든 史書에 기재된 傳燈의 기록들을 고르고 모아 놓아 정법안장에 통달한 자가 그 문장을 고르고 그 빛을 윤나게 하여 完篇을 이루어 불조의 깊은 은혜를 잊지 않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¹⁰⁾고 하였다. 자신이 저술하고 찬집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大東詠選』을 어떤 계기와 목적에서 선집 하였는지를 직접 밝힌 그의 언설은 비록 찾아 볼 수 없다하더라도, 담고 있는 내용은 다르나 성향은 비슷한 저술·찬집들에 대한 그의 분명한 입장을 보면 『大東詠選』의 선집 목적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 『大東詠選』의 선집 목적은 당대 불교계 지도자이며 지식인이자 시인의 입장에서 역대 불교 관련 시문을 수집 선발하여 이 분야를 개인적으로나마 정리하고, 관심이 있는 당대인, 후학들에게 그 근간을 알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

도였을 것이다.

『大東詠選』에는 408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불가의 시가를 주를 이루며 유가 사대부나 문인의 시도 다수 선발 되어 있다. 동일 시제에 몇 수의 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모두 443수에 이른다. 시제에 작자를 직접 기록한 경우는 190인이나 그 외에도 제목에 의하여 거의 모든 시편의 작자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¹¹⁾ 또한 소수이기는 하지만 중국인의 시¹²⁾와 일본 승려의 시¹³⁾, 고려, 조선, 중국 왕들의 시¹⁴⁾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불교와 고승, 사찰과 연관된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과 성향의 인물들이 지은 시를 수록한 점으로 볼 때 選者인 금명 보정의 식견과 관심의 폭을 알 수 있다.

시의 배열은 ‘般若多羅示達磨偈’¹⁵⁾로부터 삼국유사 소재 贊頌, 이후 元曉, 崔致元 등으로 시작하여 황매전, 김창강 등 근대 인물의 시에 이

11) 『臨濟終偈』·『圓悟示安民』·『龍樹贊佛』·『真覺終偈』·『雪峰述懷』 등과 같이 詩題에 이미 작자가 드러난 경우는 따로 제목에 작자를 부기하지 않았다. 시 제목 아래 작자를 記名한 경우는 190인, 무기명이지만 작자를 알 수 있는 것 28인, 작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 8인 등 모두 226명의 시를 수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삼국유사 소재의 찬송도 포함된 것이다.

12) 韓愈(768~842)의 〈詠蓮花〉, 李翱(772~841)의 〈上藥山大師〉, 裴休(? ~860경)의 〈贊黃蘗師〉, 袁枚(1716~1798)의 〈吟風水說〉 등 몇 편이 있다.

13) 〈以號示頌〉(日本壽允) 한 편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승려에게 준 시는 여러 편 수록되어 있어 흥미롭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示日僧石翁〉(懶翁), 〈示日僧知性〉·〈示日僧石翁〉(太古), 〈示日僧文漢〉(千峯), 〈送日僧大有〉(權近陽村), 〈示日本仙樂 三首〉·〈旅亭贈日僧 三首〉(松雲), 〈示日本間上人〉(徐居正).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까지 가서 활약했던 松雲 惟政의 시가 6수로 가장 많다.

14) 고려 왕의 시는, 〈溪水〉·〈在穴寺小蛇〉(顯宗), 〈病吟〉(宣宗), 〈上普覺〉(麗王:普覺은 一然의 시호이므로 麗王은 忠烈王일 것이다.) 〈永明寺〉(麗睿宗) 등이다. 조선왕의 시는 〈訪隱師〉·〈贈鄉故〉(李太祖), 〈題子規樓 二首〉(端宗大王) 등이 있다. 중국 왕의 시는 〈道岸影贊〉(唐中宗御製), 〈贊萬佛山〉·〈創佛國寺〉(代宗:唐) 등이 있다.

15) 釋迦佛 이래로 第一 大迦葉祖, 第二 阿難祖, 이후 내려오는 第二十七 조사인 般若多羅가 第二十八 조사인 初祖達磨에게 전한 계승이다.

9) 天下聖者, 莫不著書而教之. 世間賢哲, 亦莫不譯梵而訓之. 自佛教東漸, 著譯益熾. 漢唐之胡僧, 晉宋之高士, 競名爭頭, 造論譯經, 若長空之雲興, 如滄海之波進. 以至海東, 亦不下於華竺. 而或經論之同異, 疏記之廣略, 著者之氏名, 莫能分下. 至於講授之際, 每不無遺忘之慮, 故茲者逐旋捏合, 使備問難之資, 而幾成一弓, 命名以著譯叢譜. 寘諸案下, 備要常目一展, 而便見古今之述作者. (〈著譯叢譜序〉, 『著譯叢譜』卷1, 《韓佛全》12-434).

10) 廣畧雖殊, 其趣則一也. 然則有佛祖而無錄頌, 安可得乎哉? 今之贊頌, 始於竺華, 終於海東, 而以其錄燈諸史所載者, 槩撫而頌之, 曰佛祖略贊頌命名之, 分爲二篇. …(중략)… 不無闕漏之恨也. 但僻居每隅, 孤陋莫聞, 何足深誅也. 仰祈通方正眼者, 或有掛目, 則續錄而繼頌之, 調其文, 潤其光, 以成完篇, 庶補不忘佛祖之深恩也否. (〈佛祖錄贊頌序〉, 『佛祖錄讚頌』, 《韓佛全》12-316).

르러 찬집이 마무리 된 것으로 봐서 대체적으로 시대 순으로 작품을 배열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 있다. 하지만 鄭知常 앞에 奇蘆史가 수록되었다거나 원효보다 대각국사의 시가 먼저인 것과 같은 경우 등으로 봐서 일정한 찬집 기준과 기획에 의한 선집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순서를 기본 축으로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별한 작품을 수시로 추가 시선집을 마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작자의 신분도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역대의 시선집이 불가인을 따로 분류하여 맨 끝에 ‘衲子(『箕雅』)¹⁶⁾, ‘叢林(『大東詩選』)’ 등의 표제 아래 수록하거나, 『靑丘風雅』¹⁷⁾ · 『國朝詩刪』¹⁸⁾처럼 각 시체나 각 권의 말미에 승려의 시 몇 편을 덧붙이는 형태와는 다르다. 즉 선집자의 입장에서 작자의 신분을 고려한 체제와는 달리 『大東詠選』은 불가와 유가, 왕, 또는 중국인의 시, 일본 승려의 시 등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대체적인 시대 순을 따라 함께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성을 보여주는 한편, 선발된 시문의 주류는 역시 불가의 시문으로 『大東詠選』은 불가의 시선집으로서의 특징을 드러낸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서천 27대 般若多羅의 계승으로부터 임제를 비롯한 중국고승의 계승,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에서 근대의 경허 성우에 이르는 계승, 20편에 이르는 『삼국유사』 소재 찬송 등은 불교문학으로서 『大東詠選』 선집의 시각을 알 수 있는 면모이다. 수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대 고승들의 문집에서 선발한 시이다. 대각국사 문집에서부터 다송자 자신의 시까지 포괄하고 있다.

유가 사대부 시들 중에는 『東文選』, 『芝峯類說』, 『記言』, 『燃藜室記述』,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도 수록된 시편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

로 봐서 찬집자가 각 개인의 문집과 더불어 역대의 시선집이나 기타 類纂 등을 참조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大東詠選』 수록 詩의 주요 양상

3.1 종교적 목적의식

『大東詠選』의 첫 번째 수록 작품은 서천 27대 조사인 般若多羅가 28대 조사인 達摩에게 보인 계승¹⁹⁾이다. 달마조사는 제1대 迦葉으로부터 서천 28대이고 중국불교로 한다면 初祖가 된다. 임제 선종을 이었다고 하는 조선불교에서 달마대사를 제1대 스승으로 존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선집의 첫 번째를 반야다라의 계승으로, 두 번째는 임제의 임종계로, 세 번째는 달마의 계승으로 배열하였다. 또한 〈義淨經來〉 · 〈法眼傳法〉 · 〈達摩贊〉 · 〈龍樹贊佛〉 · 〈普覺傳法偈〉 등과 삼국유사 소재 〈贊元曉師〉 · 〈贊義湘師〉 · 〈贊慈藏師〉 등 전법과 佛祖師의 송찬 등을 다수 수록하여 종교문학으로서 『大東詠選』 선집의 시각을 알 수 있다.

또한 역대 주요 조사들의 임종계를 거의 대부분 실고 있다. 임종계라는 것은 고승대덕이 입적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최후의 유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 또한 종교문학적 입장을 중시한 금명 보정의 선시관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송광사 출신으로서 보조국사와 진각국사, 원감국사의 임종계를 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보조·진각 두 국사의 임종계를 나란히 실고 있으며 수선사 1·2세인 사

16) 『箕雅』에는 圓鑑·休靜·處能 등 20명의 시 24수가 실려 있다.

17) 『靑丘風雅』에는 眞靜·惠文·宏演·圓鑑 등 4명의 시 7수가 수록되어 있다.

18) 『國朝詩刪』에는 參寥·行思·慶雲·屯雨 등 4명의 시 4수가 있다.

19) 이 계승은 동일 제목 2수이다. “震旦雖闊別無路，要假兒孫脚下行。金雞解舍一顆米，供養十方羅漢僧。”(其一)，“行路跨水又逢羊，獨自淒淒暗渡江。日下可憐雙象馬，二株嫩桂久昌昌。”(其二)。

제간의 전법제도 함께 수록하였다.

謝賜扇子(眞覺)

昔在師翁手裏 어제는 스승의 손에 있더니
 今來弟子掌中 지금은 제자의 손 안에 있네
 若遇熱忙狂走 만약 땀어울라 날뛰는 번뇌 만나거든
 不妨打起清風 맑은 바람을 불러일으키리라

이 시는 『眞覺國師語錄』에 〈到白雲庵〉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지눌이 부채를 건네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를 주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지만, 禪家의 嗣法傳承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선종의 6대조 慧能에 이르기까지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법맥의 전승은 衣鉢의 전수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의발 전수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慧能은 제자에게 衣鉢을 전수하지 않았다 한다. 그러나 그 상징적인 의미는 계속 이어져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눌이 혜심에게 부채를 건네 준 것은 법맥을 전수했다는 의미로 본다. 혜심 또한 지눌로부터 전수 받은 부채로 청풍을 불러 일으켜 번뇌를 없애겠다고 한다. 부채라는 상징적인 매개수단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傳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날 대중처소에서 행한 지눌과 혜심의 禪問答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눌과 혜심이 언제 선문답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1208년(熙宗 4)에 지눌이 혜심에게 자신의 자리를 계승시키려고 한 점에서 지눌은 1208년 이전에 선문답을 통해 혜심에게 수선사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이다.²⁰⁾

금명 보정은 〈曹溪高僧傳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 秦星圭, 「高麗後期 眞覺國師 慧謙 研究」,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86, 32쪽.

오직 이 전은 조계산 고승들의 전이다. 어찌 그러한가. 곧 우리 개산조 보조국사께서는 구산의 장벽을 열어 선교의 종주가 되시고 제가의 유파를 융섭 하시어 조계의 종지를 세우셨다. 구산이 변하여 하나의 길 이 되고 兩家가 합하여 한 종이 되었으니 조계종의 뜻이 넓고도 크다. ……(중략)…… (고승들에 관하여 사사모이 고찰하여 고승전을 이루었으니) 다만 이와 같은 것으로 어찌 당, 송, 신라, 고려의 문장 사업과 같은 것을 도모하겠는가. 장벽을 열고 종지를 세우신 종주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고자 하고, 삼가 모든 조사들의 높은 도와 덕스런 명성이 사라지지 않아서 오직 통달한 자들이 함께 증명하고 전등을 후세에 잇기를 바랄 뿐이다. 이에 마침내 原帙을 완성하였다.²¹⁾

여기에서 밝힌 금명 보정의 생각을 통하여 그가 정통 한시의 권역에서 비껴나 있는 불가의 계승과 송찬을 굳이 『大東詠選』이라는 시선집에 선발하여 수록하였는가 이유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불교문학에 있어서 종교성의 현시는 가장 근원적인 문학적 지향점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3.2 불교적 세계관의 문학적 승화

불교문학은 세속을 떠난 출가승의 문학이 주축을 이룬다. 그러므로 그 문학적 경향은 작자의 신분에서 기인한 탈속적, 초월적 성격이 근간을 이루며 불교 특유의 철학적 사유가 짙게 배인 개성을 보여준다. 표현에 있어서는 매우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離言絕慮’의 경계

21) 唯此傳者, 但曹溪山之高僧傳也. 曷故然也? 卽我開山祖普照國師, 闢九山之障壁, 爲禪教之宗, 融諸家之派流, 立曹溪之宗. 自是九山變爲一道, 兩家合爲一宗, 曹溪宗之趣義, 廣且大矣哉! …… (중략) ……然而但如此者, 豈圖唐宋羅麗之文章事業也哉. 庶報宗主之闢障立宗, 萬一之恩, 祇望諸祖之道高德名之不朽也. 唯達者, 同垂證明, 續後傳燈, 竟成原帙. (『曹溪高僧傳序』, 『茶松文稿』 권2, 《韓佛全》 12-744).

를 지향한다.

금명보정은 시문을 선집하면서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종교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종교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시들을 다수 선발하였다. 그 한편으로 종교성 자체를 문면에 드러내지 않고 불교성을 문학적으로 승화해 낸 시편들을 선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들을 예로 들어 이 점을 살펴보자. 다음의 시는 수선사 제2대 사주인 眞覺國師 慧謹의 시이다.

寓轉物庵(眞覺)

.....

踈慵不掃復不芟
庭艸如雲深沒膝
晚起不知平旦寅
早眠不待黃昏戌
不洗面不剃頭
不看經不持律
不坐禪不燒香²²⁾
不禮祖不禮佛
.....

게을러 쓸지도 않고 풀도 베지 않으니
뜰의 풀은 구름 같아 무릎까지 빠지네
느즈막이 일어나매 이른 아침 인사를 모르고
일찍 자매 저물녘 술시를 기다리지 않네
얼굴도 씻지 않고 머리도 깎지않고
경도 보지 않고 계율도 지키지 않으며
향도 사르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고
조사님 부처님께 예불도 드리지 않네

진각국사의 문집인 『無衣子詩集』 下에 수록된 〈寓轉物庵〉이다. 여기에서는 수행의 한 경지를 이룬 선승이 다다른 물외한정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읊었다. 수행승의 기본자세는 수행청규를 지키고 각고의 정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持戒는 물론 예불조차도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오도의 경지를 넘어선 무장무애 자유자재한 도인의 활달한 경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22) 『無衣子詩集』 下 에는 ‘不燒香不坐禪’로 되어 있다.

깨달음은 모든 걸림과 집착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일이다. 그 자유의 생명은 어떤 신성한 定體가 아니며 자유자재한 妙用에 있는 것이다. 이른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應無所住 而生其心)”²³⁾ 것이다. 이 시의 전편에 아무 것도 걸림이 없는, 심지어 출가한 승려로서의 최소한의 계율조차도 걸어버린, 승과 속을 모두 떠난 자재로움이 배어난다. 이른바 ‘平常心是道’의 의미를 무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의 요지는 불법을 말하는 것조차도 굳더더기라는 의미로 보인다.

代天地答(眞覺)

萬別千差事 천차만별 다른 일
皆從妄想生 모두 망상 따라 일어나네
若離此分別 이 분별심 떠난다면
何物不齊平 무엇인들 평등하지 않으리

『無衣子詩集』 上에 실린 시이다. 이 시의 작자인 진각국사 혜심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음의 때가 없어지면 빛이 비로소 나타나고, 마음과 법이 함께 없어지면 성품이 곧 참될 것이다. 이를 깨달은 것이라고 이렇게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 늙은 중은 그렇지 않다. 즉, 조계의 거울에는 본래 티끌이 없거늘, 깨끗한 성품에 어찌 한 점의 흔적이 있겠는가. 애초에 덮지 않았는데 새삼 다시 나타나겠는가. 이 빛은 허망한 것도 아니요, 진실한 것도 아니다.”²⁴⁾

이 밖에도 『大東詠選』에는 〈夢見觀音〉·〈示湛靈六箴〉·〈六喝示海陽諸

23) 『金剛經』, 〈第十, 莊嚴淨土分〉.

24) 心垢盡除光始現, 心法雙亡性即眞. 大小一宿覺, 作伊麼語話, 老僧卽不然. 曹溪鏡本 無塵, 性淨何曾有點痕. 初不覆藏那更現, 此光非妄亦非眞. (『眞覺國師語錄』, 〈爲鄭氏賢勝靈駕〉, 《韓佛全》 6-12).

信士)·〈座右銘〉·〈禮釋尊戒壇〉·〈對水中影子〉 등과 같은 진각국사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법의 이치와 수행자의 초월적 경지를 표현한 시들이다. 다음의 시는 수선사 제6대 사주였던 원감국사 충지의 시이다. 원감국사의 시는 불가의 시로는 『東文選』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次圓照庵²⁵⁾(圓鑑)

小院寥寥終日溫²⁶⁾ 작은 절간 적막하여 종일토록 따뜻하고
和衣展脚書開門²⁷⁾ 옷 입은 채로 다리 뻗고 낮에야 문을 연다
五侯萬乘軍忘却²⁸⁾ 제후와 만승의 권세 부귀 모두 잊었으니
世上誰知衲子尊 세상에 누가 남자의 존귀함 알까

탈속한 수행승의 자족한 삶을 읊었다. 앞의 진각국사의 시와 같은 한 정도인의 자재함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출가 수행승으로서의 무한한 자부심도 드러내고 있다. 고적한 산사의 삶이 세속의 부귀권세에 비할 바 없는 존귀한 삶이라는 것이다. 수행승의 대단한 자부심이 아니고서는 이르기 어려운 정신의 경지를 보여준 시이다. 그는 〈嗣曹溪法席答韓侍郎²⁹⁾〉에서 ‘산중의 일을 묻는다면 한 발우 푸성귀와 한 병 차뿐이라 한다.’³⁰⁾고 하였다. 그리고 〈閑居山味³¹⁾〉에서는 ‘백 번 깨맨 산승의 옷과 다섯 번 깨맨 발우로도 족하고, 깊은 산사 찾는 이 없어 바람 난간에 기대어 한가롭게 홀로 즐길 뿐’³²⁾이라 하며 세속을

25) 『圓鑑國師歌頌』에는 ‘圓照庵壁上有舊題見而錄之’로 되어 있다.

26) 『圓鑑國師歌頌』에는 ‘終日’이 ‘冬日’로 되어 있다.

27) 『圓鑑國師歌頌』에는 ‘開門’이 ‘關門’으로 되어 있다.

28) 『圓鑑國師歌頌』에는 ‘五侯’가 ‘五侯’로 되어 있다. 五侯는 제후를 다섯 등급으로 나눈 것. 公·侯·伯·子·男爵을 말한다.

29) 『圓鑑國師歌頌』의 시제는 〈韓侍郎問予嗣曹溪以詩寄賀次韻答之〉이다.

30) “誰教窮子濫傳家，愧把巴音續野歌。若問山中何事業，一盂蔬了一甌茶。”

31) 문집의 시제는 〈閑居〉이다.

초월한 산승의 자유와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삶에서 터득한 경지를 〈和甘露社諸禪德〉에서 말하였다. 이 시는 원감국사가 41세 때 김해현 감로사에 주석하였을 때 한 선승의 청에 의해 읊은 것인데, 당시 인구에 회자되어 원근에서 국사를 친견하기 위해 덕을 쌓은 이들과 후진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³³⁾ 〈和甘露社諸禪德〉에서 그는 ‘오늘 아침 익은 열매 감로에 젖어 무한한 인간과 천상에 한결 같은 맛 일세’³⁴⁾라고 하였다. 인간과 자연과의 거리를 잊고 상호융화 된 산사의 삶 자체가 이미 최고의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터득한 오도의 경지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원감국사의 시들을 여러 편 선발하였는데, 그 내용상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번뇌에 전도된 이들을 경계하는 〈誠行人³⁵⁾〉, 자연과 합일된 산승의 한가로운 경지를 형상화한 〈登眞樂臺³⁶⁾〉·〈東方丈山茶花³⁷⁾〉 등이 있다. 『大東詠選』에 선발된 이런 부류의 시들은 출가 수행자의 수행의 과정에서 우려낸 어떤 정신의 높은 경지를 포상하고 산승의 한적한 삶 속에서 정화해 낸 청정한 정신의 순화라는 점에서

32) “百結霞衣五綴盂，平生睡足復何須。雨餘深院無人到，閑倚風樓只自娛。” 五綴盂는 五綴鉢을 말한다. 파손을 때워 고친 곳이 5군데인 발우로, 겨울에서는 발우가 五綴을 넘으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五綴에 모자라면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33) 至年四十一，始住金海縣甘露社。有一禪德，進師前講詩，師云，‘春日花開桂苑中，暗香不動少林風。今朝果熟沾甘露，無限人天一味同。’ 茲詩膾炙人口，遠近聞師，想見其像。自師入院，宿德風馳，後進雲集。(『圓鑑國師歌頌』補遺，〈曹溪山第六世贈諡圓鑑國師碑銘并序〉，〈韓佛全〉 6-410).

34) “春日花開桂苑中，暗香不動少林風。今朝果熟沾甘露，無限人天一味同。”

35) “此身若信同泡幻，刀割香塗豈二心。只爲多生顛倒執，順違波裡枉遭沈。” 『退溪先生文集攷證』 권3, 〈教疏〉에 의하면, “薰沐(齊語)魯莊公束縛管仲，以與齊使，齊使受之，比至，三髡三浴之。註，以香塗身曰髡，亦或爲薰。”이라고 하였다. 향을 몸에 바르는 것을 髡이라 한다고 했으니, ‘香塗’는 향을 바른다는 뜻이다.

36) “溫溫朝旭上東岡，閑陟高臺坐石床。和日丹楓映霞納，忽驚身著錦衣裳。”

37) “夏炎將半百花盡，喜見山茶方盛開。應是天公憐寂寞，小留春色着山隈。”

불교문학의 한 전형적인 개성을 지닌 시들에 대한 選者의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淸虛 休靜과 逍遙 太能의 시를 보자.

①

登毘盧峰³⁸⁾(淸虛大師)

萬國都城如垤蟻³⁹⁾ 만국의 도성은 개미굴 같고

千家豪傑若醯鷄 천가의 호걸들은 초파리 같구나

一窓明月淸虛枕 밝은 달 아래 청허한 기운을 베고 누우니

無限松風韻不齊 한 없는 솔 바람 운치가 고르지 않네

②

示海運禪師⁴⁰⁾(逍遙)

飛星爆竹機鋒峻 비성과 폭죽 같은 날카로운 기세 삼엄하고

裂石崩崖氣像高 돌을 찢고 벼랑을 무너뜨리는 기상이 드높다

對人殺活如王劔 사람을 대해 죽이고 살리기 왕의 칼과 같아

凜凜威風滿五湖⁴¹⁾ 늠름한 위풍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다

①의 시에 대하여 西厓 柳成龍은 “근세의 승려들 가운데 休靜이 있는데 선가의 학문에 자못 밝아 승도들 사이에 명성이 자자하다. 또한 시를 잘 지었는데 스스로 淸虛子라 했다. 일찍이 묘향산에 있을 때 시 한 수를 지었는데, ‘만국 도성은 개미굴 같고 천가 호걸들은 초파리와 같다. 달 밝은 창 아래 맑고 깨끗함 베고 누우니 한 없는 솔바람에 운치가 가지런하지 않도다.’고 하였다. 物外에 우뚝 서서 세속을 굽어보는

38) 『淸虛集』 권3에는 ‘登香爐峯’으로 되어 있다. (《韓佛全》 7-701).

39) 『淸虛集』 권3에는 ‘蟻壑’로 되어 있다. (《韓佛全》 7-701).

40) 『逍遙堂集』의 시제는 〈贈悅閣梨 二〉이다. 동일 제목하의 두 수이다.

41) 문집에는 ‘五湖’, 『大東詠選』에는 ‘五湖’로 되어 있다. 문집을 따른다. 五湖는 지칭하는 지역이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五湖四海’의 뜻으로 온 세상을 범칭 하는 말이다. 『景德傳燈錄』, 福州鼓山神晏國師, “鼓山自住三十餘年, 五湖四海來者, 向高山頂上看山玩水, 未見一人快利通得.”

뜻이 있으니 역시 한 시대의 뜻 깊은 작품이라 하겠다.”⁴²⁾고 평하였다.

②는 활달한 禪詩로 정평이 나 있는 소요 태능의 시이다. 機鋒은 銳鋒과 같이 날카로운 칼이나 창 끝, 또는 그러한 기세를 말한다. 이는 선승이 다른 승려에게 보이는 태도, 또는 선가에서 스승이 수행승을 지도할 때 보이는 태도나 방법이 민첩 격렬한 것을 날카로운 鋒에 비유한 것이다.

청허 휴정은 그의 〈三夢字〉⁴³⁾에서 ‘주인과 객 모두 꿈속에서 꿈을 말하는 사람들’⁴⁴⁾이라 하였고, 〈聞午鷄聲〉⁴⁵⁾에서는 ‘지금 문득 닭 우는 소리 들으니 능히 장부의 일을 마칠 수 있겠네.’⁴⁶⁾라고 하였다. 또한 소요 태능은 위의 예시한 시에 연이은 시에서 ‘쇠망치로 그림자 속 허공을 찢고 진흙 소를 깨워 해동을 지나간다. 산호와 달 서로 비추니古今, 乾坤이 한 바탕 웃음 속에 있다.’⁴⁷⁾고 하였다. 두 선승의 시가 모두 호방, 활달한 선풍의 기상을 드날렸다. 금명 보정도 전대 선승들의 이러한 기상을 높이 평가하고 기려서 『大東詠選』에 수록하였을 것이다.

3.3 역사적 가치 중시

금명 보정이 활동하였던 시대는 역사적 격변을 겪은 시대였다. 새로

42) 『西厓先生別集』 卷4. 〈僧人能詩〉, “今世僧人中有休靜, 頗解禪家學, 有聲於緇流, 且善詩, 自號淸虛子. 嘗在香山有一絕云, ‘萬國都城如蟻垤, 千家豪士若醯鷄, 一窓明月淸虛枕, 無限松風韻不齊.’ 有高蹈物外, 俯視塵寰之意, 亦一時意會作也.”

43) 『淸虛集』 권2에는 ‘三夢詞’로 되어 있다. (《韓佛全》 7-691).

44) “主人夢說客, 客夢說主人. 今說二夢客, 亦是夢中人.”

45) 『淸虛集』 권2에는 ‘過鳳城聞午鷄’로 되어 있다. (《韓佛全》 7-685).

46) “髮白心非白, 古人曾漏洩. 今聞一聲鷄, 丈夫能事畢.”

47) “金鏡影裡裂虛空, 驚得泥牛過海東. 珊瑚明月更相照, 今古乾坤一笑中.” ‘更’이 문집에는 ‘冷’으로 되어 있다.

운 문물과 외세가 밀물처럼 밀려들고 급기야 국권이 침탈당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살아가야 했던 시기였다. 그가 시를 선발할 때 자신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大東詠選』에 우리 역사의 구비마다 그 역사를 담아 낸 시들을 여러 편 수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대의 선지식으로서 우리 역사의 격변기에 대한 회고가 없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고려말 안향에 의한 주자학 도입(48), 여말 선조의 왕조 교체기(49), 수양대군의 등극과 단종 폐위(50)

48) 〈題學宮壁〉(文成公安珣), “書燈處處皆祈佛, 絲管家家盡禮神. 獨有一間夫子廟, 滿庭春草寂無人.” 이 시에서 안향은 ‘등불 켜 곳마다 부처에게 기원하고 풍악 울리는 집마다 신에게 제를 올린다. 오직 한 칸 공자의 사당에는 봄풀 우거져 적막하기만 하다.’고 하면서 유학자가 보는 현실과 자신의 임무를 말하였다. ‘書燈’이 『謏聞瑣錄』과 『練藜室記述』(별집 제7권)에는 ‘香燈’, ‘絲管’은 『謏聞瑣錄』에는 ‘絃管’으로, 『練藜室記述』(별집 제7권)에는 ‘簫管’이로 되어 있으며, ‘禮神’은 『謏聞瑣錄』·『練藜室記述』(별집 제7권)에 ‘祀神’으로 되어 있다.

49) 〈示曹漢龍〉(徐甄), “千載神都隔渺茫, 忠良濟濟佐明王. 統三爲一功安在, 只恨前朝業不長” 서건은 이 시에서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공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왕조의 왕업이 장구하지 못함이 한스럽다.’고 하여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기에 지난 왕조인 고려의 멸망을 한하고 있다. 『동문선』(제22권)에는 〈述懷〉라는 제목으로 전하는데, 『동문선』이나 『국조보감』 등에 제 1구는 “천년의 신도는 한강에 닿아 있고(千載神都隔漢江)”라고 하였다. 또한 제 4구의 ‘只恨’이 ‘却恨’으로 되어 있다. 이 시는 작자 서건이 고려가 망한 뒤에 개성에서 지은 것인데, 조선의 功臣들이 이 시를 허물로 죄를 내리기를 청하니 “고려의 신하가 자신이 섬기던 임금을 잊지 못하는 것은 인정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 李氏가 어찌 천지와 함께 영원할 수가 있겠는가. 혹시라도 이씨의 신하 중에 이런 자가 있다면 가당한 일이다. 그대로 두고 국문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여 太宗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중에 또 다시 벌할 것을 굳이 청하니 “서건은 고려의 신하로 우리 조정에 北面을 하지 않고 자신이 섬기던 임금을 추모하고 있으니, 이는 백이 숙제와 같은 무리이다. 어찌 죄를 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국조보감』 제4권, 태종조 2, 壬辰, 1412). 이 시와 함께 曹漢龍의 〈答徐甄〉도 『大東詠選』에 수록 되어 있다. “天時人事兩茫茫, 更向那邊拜聖王. 莫道此間真趣寡, 山高處處水聲長.” 이 외에도 조선 개국 시기의 시로, 〈李太祖解夢〉(二首)(無學)·〈李太祖潛邸時〉·〈贈鄉故〉(李太祖) 등이 있다.

50) 〈題子規樓〉(端宗大王), “一自冤禽出帝宮, 孤身隻影碧山中. 假眠夜夜眠無假, 窮恨年

등 역사적으로 주목되는 시기를 읊은 시들을 시선집에 뽑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관련된 시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두 역사적 사건은 僧軍의 참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불교의 역할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73세의 노령에도 전국에 격문을 돌려 오천 명의 승병을 규합하고 공을 세운 휴정에게 신조는 ‘國一都大禪師 禪教都總攝 扶宗樹教普濟登階尊者’라는 존호를 내렸다. 신조가 휴정에게 하사한 목축에 대한 감회를 읊은 〈宣祖大王御賜墨竹詩韻〉(51)을 비롯하여 임진왜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들을 선발하여 『大東詠選』에 수록하고 있다. 다음은 임진왜란 때 승군의 지도자로서 가장 많은 전공을 세운 사명 유정의 시이다.

別洛中諸太宰(四溟)

年來做錯笑餘生	여러 해 잘못된 일로 여생을 비웃으며
數月荷衣滯洛城	몇 달 동안 납의 걸치고 서울에 머물렀네
愁病平分透春恨	시름겨운 병은 모두 청춘을 보낸 한이요
歌吟半惱憶山情	읊노니 반은 산중을 그리워하는 마음 괴롭네
浮盃謾道堪乘海	술잔을 띄워 부질없이 바다를 건넌을 말하고
飛錫初羞誤說兵	석장 날려 전쟁에 대해 말한 것 비로소 부끄럽네

年恨不窮. 壘斷曉峯殘月白, 血流春谷落花紅. 天讐尙未聞哀訴, 何奈愁人耳獨聰.” 자신을 궁궐을 나온 원통한 세라하고 피 흘리는 봄 산 골의 애처로운 하소연을 하늘은 귀가 멀어 듣지 못한다고 괴팍한 한을 토로 하였다. 〈又〉(端宗大王)에서는 “白月夜蜀魂啾, 含愁情倚樓頭. 爾啼悲我聞苦, 爾無聲我無愁. 寄語人間苦勞人, 慎莫登春三月子規樓”라 하여, 두견새의 울음에 자신의 깊은 슬픔을 실어 읊고 인간 세상 괴로운 이들에게 춘삼월에는 자규루에 오르지 말라고 하였다.

51) “瀟湘一枝竹, 聖主筆頭生. 山僧香爇處, 葉葉帶秋聲.” 『大東詠選』에는 〈宣廟墨竹〉라 되어 있다.

52) 『大東詠選』에는 ‘洗兵’, 『四溟堂大師集』 권3에는 ‘說兵’으로 되어 있어 문집을 따른다. ‘洗兵’은 병기를 씻어 거두어들인다는 말로 전쟁을 끝낸다는 뜻이다. 문맥으로 볼 때 전쟁, 군사의 일을 잘못 말한 것을 비로소 부끄러워 한다는 뜻이 어울릴 것이

爲國重輕諸老在 나라 위한 크고 작은 일 여러 재상께 달려 있으니
願承珠唾賁東行 주옥같은 시를 얻어 동으로 향하는 길 빛내고자 하네

문집의 시제는 ‘서울의 여러 재상들께 도해시를 청함(謹奉洛中諸大宰乞渡海詩)’이다. 남조 때 杯渡和尚⁵³⁾이 술잔을 띄워 바다를 건넜다는 고사를 들어 자신이 일본으로 가는 길에 들어 설 것임을 말하고, 재상들에게 주옥같은 시를 청하였다. 이에 화답한 시가 『大東詠選』에 수록되어 있다. 澤堂 李植은 〈送松雲日本行〉에서, 적을 제압할 좋은 계책이 없어서 산중의 노승을 일으켜 세웠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돌아와 임금께 복명한 뒤에는 지팡이 짚고 다시 산중으로 돌아갈 것이라’⁵⁴⁾고 하였다. 芝峰 李暉光은 〈又次松雲〉에서, 성세에는 명장이 많지만 뛰어난 전공은 오직 노승에게 있다고 유정의 공로를 높이고 ‘허리에 찬 한 자루 긴 칼이 오늘 남아들을 부끄럽게 한다.’⁵⁵⁾고 하였다. 이 외에도

漢陰 李德馨⁵⁶⁾과 西厓 柳成龍⁵⁷⁾이 일본으로 가는 유정에게 준 시들도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정묘호란 시기에 쓰인 시이다.

仁祖大王移遷江華時(虛白明照)	
金鷲西幸江華島	왕께서 서쪽 강화도로 피난하시니
千載王基一朝空	천년 왕업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허사로구나
百萬阿衡悲路側	백만 신하들 길옆에서 비통해 하고
三千宮女泣途中	삼천 궁녀들 도중에 눈물 뿌리네
陣雲敍捲愁無盡	전장의 구름 걷혀도 근심은 다하지 않고
角貝高低恨不窮 ⁵⁸⁾	뿔피리 소리 높고 낮고 한은 다하지 않네
願抱龍泉誅賊藪	원컨대 용천에 칼을 갈아 적의 소굴 베어내고
宸衿回復大明宮	왕께서는 궁궐을 회복 하소서

인조는 청나라 군대의 침입으로 丁卯胡亂(1627)을 당하여 강화도에 피난하였다가 형제국의 의를 맺고 화의하였다. 1636년에는 다시 丙子胡亂을 당하여 남한산성에서 항거하다가 결국은 성을 나서서 三田渡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군신의 의의를 맺어 昭顯世子和 鳳林大君 두 왕자를 瀋陽에 인질로 보내었다. 이러한 역사적 시기에 虛白 明照(1593~1661)는 승군 지도자로 참여하였다. 허백은 1627년 정묘호란 때 팔도승병대장이 되어 사천 여명의 승병을 거느리고 安州에서 싸워

고도 벼슬을 하지 않고 바닷가에 은둔하여 생을 마친 高士이다. ‘陸生’은 陸賈인데 西漢 초기 楚나라 사람으로 劉邦을 따라 천하를 평정하는데 참여하였다.

56) 〈別松雲赴日本〉(漢陰), “紛紛蛙吹自爲多, 誰識博風九萬除. 道可適機心要細, 言能驚俗氣須和” 『漢陰先生文稿』 권2, 〈送松雲赴日本〉에는 제1구 ‘吹’는 ‘坎’, 제3구 ‘機’는 ‘幾’로 되어 있다.

57) 〈答松雲渡江〉(西厓), “栖栖君莫恨, 卒卒我難歸. 方外知心久, 夢中見面稀. 秋高風落盡, 天濶鴈來遲. 蓮社平生約, 差池到老違.”

58) ‘角貝’의 정확한 용례나 전고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내용상 뿔이나 소라 등으로 만든 전장에서 쓰이는 피리로 번역하였다.

다.

53) 晉·宋 때 승려로 성명은 알 수 없다. 전해지는 말로는 항상 나무로 만든 잔을 타고 물을 건너서 ‘杯渡’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南朝 梁 慧皎의 『高僧傳』, 神異 下, 〈杯渡〉에 나오는데, 후대에는 이로 인하여 승려의 出行을 칭하는 말이 되었다.

54) “制敵無長算, 雲林起老師. 行裝冲海遠, 肝膽許天知. 試掉三禪舌, 何煩六出奇. 歸來報明主, 依舊一筇枝.” 『大東詠選』에는 ‘三寸舌’로 되어 있고, 『澤堂先生集』 권1 에는 ‘三禪舌’로 되어 있다. ‘三禪’은 色界 第三禪天을 가리키는 말로, 육계·색계·무색계의 삼계 중에서 색계에서 四禪을 나누는데 제3의 하늘인 ‘離喜妙樂地’라 한다. 한편으로는 깊고 오묘한 선정에서 심신의 즐거움이 생기므로 ‘定生喜樂地’라고도 한다. ‘三寸舌’이라면 세치 혀를 놀리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 ‘三禪舌’이라 하면 고승의 선정의 힘을 잠시 빌리면 왜적을 설복시키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되므로 문집을 따라 시를 제시한다. ‘六出奇’는 陳平이 한 고조 유방을 위해 내 놓은 여섯 가지의 계책을 말한다.

55) “盛世多名將, 奇功獨老師. 舟行魯連海, 舌凭陸生辭. 變邪夷無厭, 羈縻事恐違. 腰間一長劍, 今日愧男兒.” 『芝峯類說』卷13, 文章部六에 제5구의 ‘邪’가 ‘詐’로, 제6구의 ‘違’가 ‘危’, 제7구의 ‘劍’이 ‘劔’으로 되어 있다. ‘魯連’은 戰國時代 齊나라의 義士인 魯仲連이다. 그는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으로 말로써 해결하기 어려운 분란을 해결하

크게 공을 세웠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義毅을 모아 군량을 보급하는 등 많은 활약을 하였다. 안주 대첩 때 현장의 상황을 씩씩하게 그려 낸 〈安州大戰時〉에서 허백은 의병을 모집하여 장정 사천 명을 규합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말하고 전장의 처참한 참상을 보며 ‘백상루 아래 청천강 물도 길이 남은 슬픔 안고 남 새워 우는구나’⁵⁹⁾라고 하여 깊은 슬픔을 토로하였다. 허백 명조는 이 외에도 〈受大將印綬〉·〈見外報點軍〉 등의 시를 지어 병자호란 당시 전장의 생생한 모습을 시로 표현하였다.

3.4 사찰의 공간적 의미

출가자의 삶은 당연히 사찰을 터전으로 한다. 또한 사찰은 거의 예외 없이 경치 좋고 깊은 산중에 위치하여 불자는 물론 역대 수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던 곳 중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사찰은 단순히 한 종교의 聖殿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 창작의 배경이자 소재가 되기도 하고, 사찰을 찾는 것이 곧 시작의 계기가 되기도 하여 사찰 제영을 비롯한 사찰 관련 시문이 수 없이 창작되었던 것이다.

『大東詠選』에도 산사와 그곳 출신의 고승과 관련된 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고승 관련 시문은 고려시대의 고승찬과 조선시대의 유불교 유시가 몇 편 있고 사찰을 배경으로 한 시가 많이 선발되어 있다. 고승의 덕을 찬양한 시는 고려시대 李齊賢⁶⁰⁾과 朴仁凡⁶¹⁾, 고승과의 교류

시는 대표적으로 추사 김정희의 시를 들 수 있다. 추사의 시는 세 편이 선발되었는데 그 중 한 편을 보자.

次燃燈詩⁶²⁾(金秋史)

草衣老衲默參禪	초의 노승 묵묵히 참선하고
燈影沁心墨影圓	등불 그림자 가물가물 먹 그림자 둥글었네
不剪燈花留一轉	불꽃 심지 베지 않고 남겨 한 번 돌리니
天然擎出火中蓮	천연스레 불 속에서 연꽃이 솟아나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추사와 초의는 金蘭之契를 맺은 知己이다. 시선집에 수록된 추사의 〈贈草衣大師〉⁶³⁾에서도 “눈 앞의 조주 차 마시고 손에는 梵志華를 거머쥐었네(眼前白喫趙州茶, 手裡橫拈梵志華)”라 하였다. 梵志는 바라문(brahmana)의 한역으로 梵土라고도 한다. 바라문은 진리에 뜻을 두고 수행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 시구는 영산회상에서 석가모니가 대중에게 꽃을 들어 보이고 가섭만이 그 뜻을 알았다는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추사와 초의 사이에 오고 가는 최상의 정신적 교감을 상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예시한 시에서도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예술인이었던 두 사람의 승속을 초월한 정신적 교감을 느낄

章’은 학문이나 수양이 성취되어 찬란하게 문채가 난다는 의미이다. “吾黨之小子狂簡, 斐然成章, 不知所以裁之.”(『論語』, 公治長).

61) 〈梵日國師贊〉(朴仁凡), “最上之法, 杳杳冥冥. 皓月之白, 長江之清. 彼既有相, 吾乃無形. 無形之形, 可以丹青” 달의 밝음과 장강의 맑음도 상이 있지만 최상의 법은 깊고도 아득하다고 하며 범일 국사에게 찬사를 보냈다.

62) 『阮堂全集』권10에는 시제가 〈芋社燃燈〉으로 되어 있고, 제1구의 ‘默’이 ‘墨’으로 되어 있다.

63) 〈贈草衣大師〉(金秋史), “眼前白喫趙州茶, 手裡橫拈梵志華. 喝後耳門飲箇響, 春風何處不山家.” 『阮堂全集』권10의 시제는 〈留草衣禪〉이고 제2구의 ‘橫’이 ‘牢’로, 제3구 ‘響’이 ‘漸’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추사의 〈次示疾圖〉 한 편이 더 수록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抹却毘耶示疾圖, 佛瘡祖病一都虛. 法華藥草選鈍劣, 不是藥者採來無.”

59) “論說飛來募義兵, 壯丁糾合四千名. 江邊只見旌旗色, 城上唯聞刁檄聲. 溝壑填委誰最恨, 道途狼貝我深驚. 百祥樓下清川水, 長帶餘悲徹夜鳴.” ‘狼貝’는 ‘狼狽’이다.

60) 〈覺嚴眞贊〉(李齊賢), “國師乾乾, 有德與年. 王命寫像, 載瞻載虔. 是身離相, 是法離詮. 卽圖作贊, 臣愧斐然” 각업국사의 영정을 대하여 그 덕을 추모하며 찬을 짓기에는 자신의 글 솜씨가 부끄럽다고 겸양까지 드러내고 있다. 『大東詠選』에는 ‘斐然’으로 되어 있으나, 『益齋亂稿』권9에 ‘斐然’으로 되어 있어서 문집을 따른다. ‘斐然成

수 있다. 마지막 구의 불 속에서 천연스럽게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이 바로 추사와 초의 두 사람의 고고한 정신을 상징한다고 해도 지나친 억측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산사를 배경으로 그곳의 고승과의 교유 속에서 이루어진 시들도 『大東詠選』의 선집의도에 부합하는 성격을 지닌 시들이지만, 古刹을 배경이나 시적 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시들에도 選者는 주목하였다. 시선집에는 고승 관련 시보다는 사찰과 관련된 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遊雙溪寺四首(孤雲)

其三

萬壑雷聲起 만 골짜기 우레 소리 일고
千峰雨色新 천 봉우리 비 온 뒤 더욱 산뜻해
山僧忘歲月 산승은 세월을 잊고
唯紀葉間春 오직 잎 사이 봄 만 기억하네

題清溪寺壁⁶⁴⁾(卞季良)

石路千崖盡 천길 벼랑 돌길 다한 곳
香烟一室清 향 연기에 온 방안이 맑아지네
客來求煮茗 객이 와서 차를 달라 해도
僧坐自翻經 스님은 앉아 불경만 읽고 있네
樹老何年種 늙은 나무는 언제 심은 것인가
鐘殘半夜聲 깊은 밤 종소리 여운을 남기네
悟空人事絕 공을 깨달아 인간사 끊기니
高臥樂無生 고고한 자태로 무생을 즐기네

사찰과 이를 둘러싼 주변 공간, 그리고 산승의 삶이 한데 어우러져

물아일여, 탈속한정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이다. 『大東詠選』에 실린 儒者의 시들 중에는 이러한 경향의 시가 많은데, 選者인 금명보정이 불법 도량인 사찰과 그 주변 자연환경이 승속을 막론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의미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선집 된 시들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李穡은 〈遊枕溪樓〉에서 송광사 침계루에 올라 ‘인간 만사를 쉬고자 한다.’⁶⁵⁾고 하였다. 승주군에 있는 大光寺를 읊은 〈遊大光寺〉에서 金克己는 대광사 주변의 아름다움 경치에 심취하여 그윽한 곳 찾아 앉아 세속 욕심 잊었다고 하며 ‘속된 발길로 깨끗한 이곳을 더럽히니 천 바위 만 골짜기 분명 서로 꾸짖고 있을 것이다.’⁶⁶⁾고 하였다. 이밖에도 이색의 〈題松廣寺〉⁶⁷⁾와 이규보의 〈遊逍遙山〉⁶⁸⁾은 사찰의 내력과 그 유서 깊은 고찰

65) “披雲一上枕溪樓，便欲人間萬事休。半日登臨即歸去，明朝上馬重回頭。”

66) “紅墩出嶺卷林霏，信步尋幽坐息機。亂石千株雲浪湧，懸流一帶玉虹飛。林間雨過花頭重，澗底風回柳力微。自笑凡蹤塵淨界，千巖萬壑定相識。”

67) 〈題松廣寺〉(牧隱李穡), “崑崙修禪社，遠在松廣山。額曰大吉祥，龍拏樑棟間。臨川秉老筆，調戈光芒寒。燕京眼中在，石刻應未刊。豐功絕無比，美名垂不刊。” 멀리 송광산에 있는 우뚝한 수선사는 편액을 대길상이라 하였는데 아름다운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 시는 작자의 원시 중에서 일부를 『大東詠選』에 수록한 것이다. 『牧隱詩藁』권11에 의하면, 시제는 〈奉答松廣和尚惠茶及扇〉이다. 모두 28구의 시로 『大東詠選』에는 앞 부분 10구만 수록되어 있다. ‘崑崙·樑棟·調戈’가 문집에는 ‘巍巍·梁棟·珞戈’로 되어 있다. ‘珞戈’는 무늬를 아로새긴 창으로, 창의 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漢書』, 郊祀志 下, “賜爾旂鸞黼黻珞戈.”에 대한 顏師古의 注에 “珞戈, 刻鏤之戈也.”라고 하였다. 『大東詠選』에 수록되지 않은 뒷부분은 다음과 같다. “魔外漸增織，有此倭民頑。清淨煙燭滅，寂寥月盤桓。我師業白久，拈花曾破顏。多生托交契，憐我病骨酸。扇以涼我肌，茶以清我肝。初逢滅毒火，漸覺通玄關。欲令乘清風，颯爾超塵寰。身心永安穩，不復憂恹。稽首致深謝，相望天地寬。” 선업을 쌓은 지 오래되고 염화미소의 경지를 체득한 선사께서 부채로 몸을 시원하게 하고 차로 간을 맑게 해주어 번뇌가 사라지니 머리 숙여 감사드리는데 서로 바라보니 천지는 넓기만 하다고 한다.

68) 〈遊逍遙山〉(李奎報), “循山渡危橋，疊足行線路。上有百仞巖，曉聖來結宇。靈蹤渺何處，還影奮鵝素。茶泉貯寒玉，酌飲味如乳。此地舊無水，釋子難拏住。曉公一來寄，甘液湧嘉寶。” 楊州邑 북쪽 40리 逍遙山の 逍遙寺에 元曉井이 있다. 이규보는 원효대사

64) 『春亭集』 권1에는 시제가 〈題清溪山行上人院〉으로 되어 있다.

이 당시에 전해 주는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읊은 것이다. 역대 한시를 살펴보면 사찰과 그 주변의 자연은 매우 중요한 창작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가치에 주목하여 금명 보정은 『大東詠選』에 사찰 제영을 비롯한 다수의 사찰 관련 시를 선발하였던 것이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근대 우리 역사의 격변기를 살았던 송광사 鑄眞 寶鼎(1861~1930)의 『大東詠選』의 선집 의도와 구성, 그리고 수록 시문의 주요 양상을 고찰하였다.

금명 보정은 당대 선지식들을 두루 參學하여 수행과 폭넓은 학문의 기반을 다졌다. 그는 講伯으로서 이름이 높았고 교육에 열의를 가진 교육자이기도 하였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의 방대한 저술과 시문집이다. 그의 일생이 오직 불법을 현양하는데 근간이 될 귀중한 자료수집과 저작으로 일관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저술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그의 저작에 대한 집념과 1101편의 시를 남긴 대시인으로서의 문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大東詠選』을 편찬하였다.

『大東詠選』은 226명의 시 443수를 수록하고 있다. 정확하게 지켜지는 편집 기준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시대 순을 따랐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비록 1수이지만 기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시를 선발하였다. 그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밝혔듯이 소중한 자료들이 散逸되

가 이곳에 주석하면서 샘물이 용솨음치게 한 이후부터 비로소 수행자들의 모여 살 수 있는 수행의 도량이 되었다고 하였다. 眉叟 許穆(1595~1682)의 『記言別集』 제 9권 〈逍遙山記〉에 이 시와 관련된 상세한 내력이 기술되어 있다.

는 것을 막고 당대나 후대인들이 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저술을 짓고 節錄과 選集을 마련하였다. 그러한 저작 활동의 기반에는 무엇보다도 불교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한 그의 의지가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大東詠選』의 편찬에 있어서 시를 선발할 때 불교와의 관련성을 중시한 그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大東詠選』의 구성과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수록된 시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고찰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소수의 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들이 불교와 어떻게든 관련을 가진 시들로 파악된다. 불법의 전승과 부처와 조사에 대한 존숭의 뜻을 담은 종교문학으로서 목적의식을 문면에 드러낸 시들은 다른 시선집에서는 볼 수 없는 불교시선집으로서 『大東詠選』만이 지닌 분명한 특성이라 할 것이다. 종교성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불교적 삶과 사유, 세계관을 시로 승화시킨 시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禪詩의 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문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가장 수준 높은 불교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들은 대부분 역대 고승들의 문집 소재 시에서 선발된 것들로 불교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금명 보정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살아 온 인물이다. 그는 우리 역사의 격변기에 등장했던 시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보여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기,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시대상을 담은 시를 적지 않게 선발하였다. 이러한 시들도 역사적 현실에 참여한 불교인을 중심으로 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문학의 역사적 가치를 중시한 점은 인정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수행을 비롯한 출가승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사찰의 공간적 가치에도 주목하였다. 그는 작자의 유·불을 막론하고 사찰과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과 거기에 배어있는 역사를 읊은 시를 선발하였다. 시 창작의 배경과 소재, 계기

로서 사찰이 지닌 가치를 중시했던 것이다.

『大東詠選』은 불교적 관점에서 역대 시문을 선발한 시선집으로 작품에 내재한 종교성, 문학성, 역사성 등에 주목하고 사찰이 지닌 공간적 가치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담고 있는 불교시선집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大東詠選』이 불교시선집으로서 지니고 있는 한계와 자료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불교 외 인물들의 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불교문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불가의 시 선발에 편향성이 있다. 眞覺國師(19편)·圓鑑國師(31편)·四溟 惟政(23편) 등 일부 고승들의 시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 반면에 역대 평자들로부터 문장력과 詩才를 높이 평가 받았던 淸虛 休靜(5편)·白谷 處能(2편)·逍遙 太能(1편)·艸衣 意恂(2편) 등의 시가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또한 불교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비중이 높았던 虛應堂 普雨의 시를 신지 않은 경우처럼 조선시대 약 90종에 달하는 불가문집이 있었으나 그 중 절반 이상이 한 편도 선발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역대 佛家詩를 더욱 다양하게 선발하고 거기에다 일부 중요 작품만이라도 허균의 『國朝詩刪』처럼 批나 評까지 첨가하였다면 『大東詠選』의 가치와 위상은 분명 차원이 다른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大東詠選』의 자료로서의 가치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불교인에 의한 거의 유일한 불교시선집이다. 역대로 불가의 문집은 고려에서 근대까지 등장하였으나 거의 모두가 후대인에 의해 시문만을 모아 책으로 엮는 것이었다. 문학관을 구체적으로 피력하거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를 선집하는 등의 저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개인적인 취향이나 불교의 고승에 의한 불교 시선집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다. 둘째, 한 개인의 취향에

근거한 시선집이라는 편협성을 안고 있지만, 選者가 불교문학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니만큼 불교문학의 외연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셋째, 불교 관련 유가의 시를 포괄하고 있어서 역대 문학 작품 속에 내재된 불교성을 조명해 볼 수 있다. 종교로서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아닌, 문학 작품 창작의 한 요소이자 배경으로서 불교가 어떤 작용을 하고 의미를 지니는가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錦溟 寶鼎, 『大東詠選』
 _____, 『茶松文稿』
 _____, 『茶松詩稿』
 _____, 『栢悅錄』
 _____, 『佛祖錄讚頌』
 _____, 『著譯叢譜』
 _____, 『曹溪高僧傳』

金正喜, 『阮堂全集』
 金宗直, 『靑丘風雅』
 南龍翼, 『箕雅』
 無衣子 慧謚, 『無衣子詩集』
 梵海 覺岸, 『梵海禪師文集』
 卞季良, 『春亭集』
 四溟 惟政, 『四溟堂大師集』
 逍遙 太能, 『逍遙堂集』
 『新增東國輿地勝覽』
 圓鑑 沖止, 『圓鑑國師歌頌』

柳成龍, 『西厓先生別集』
李穡, 『牧隱詩藁』
李晬光, 『芝峯類說』
李植, 『澤堂先生集』
張志淵, 『大東詩選』
淸虛 休靜, 『淸虛集』
許筠, 『國朝詩刪』
許穆, 『記言』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6.

백기란, 「茶松子 茶詩 考察」, 韓國茶學會誌, 2002. 12.

白雲, 「曹溪高僧傳과 東師列傳의 比較研究」, 茶松子(錦溟寶鼎禪師)학술회의 발표집, 2001, 송광사.

李鍾燦, 「茶松의 著述」, 茶松子(錦溟寶鼎禪師)학술회의 발표집, 2001, 송광사.

秦星圭, 「高麗後期 眞覺國師 慧謚 研究」,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86.

千柄植, 「錦溟禪師 茶詩의 世界」, 茶松子(錦溟寶鼎禪師)학술회의 발표집, 2001, 송광사.

〈투고일 : 2007. 6. 30. 심사일 : 2007. 7. 16. 심사완료일 : 2007. 8. 10.〉

〈Abstract〉

A Study on the Daedongyeongseon(大東詠選)

Kim, Seok-tae

Literary activities are continued by Buddhist priests in the age of classical literature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till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Hundreds of anthologies, particularly appeared after Daegakguksa's collection of works, enriched the realm of classical literatures. However, the anthology which shows the core of a Korean Buddhist literature to descendants hardly existed. Of course 146 numbers of Buddhist-poetry was inserted in the Daedongyeongseon which was compiled by Jang-Ji-Yeo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but that selection was just a view of Confucianist not a view of Buddhists who had a discerning eye. Fortunately, there was Daedongyeongseon made by Geummyeongbojeong which is the selection of Buddhist-poetry, so it was possible to see the flow of the history of Buddhist-literature.

Geummyeongbojeong was a representative sutra lecturer of that time. He was also an educationist and an author and a poet who create as many as eleven hundred Chinese poems. Therefore, the poems of Daedongyeongseon selected by him were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 of the history of Buddhist-literature because they represented the character of Buddhism well. Daedongyeongseon chose not only Korean poems but also chose Chinese and Japanese poems. It also contained Confucianist's poem as well as a Buddhist's.

The contents of it could be classified into several parts. One is the part which has strong color of Buddhism, another is the historical part and the other is the part that stands on a high artistic level. This anthology has several meanings. First, by confirmed fact, Daedongyeongseon is the only anthology which was edited by Buddhist's discerning eye. We may know the character of Buddhist literature and the view of literature. It also includes the poems of Confucianists, so we can understand the value of Buddhism in the history. Finally, it offers the opportunity of appreciation of the beautiful poem which harmonizes the view of Buddhism and the literature.

Key word : Geummyeongbojeong, Daedongyeongseon,
Daedongsiseon, Buddhist-literature, Buddhist-poetry